

검찰, 민주당 전대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기소

현금 살포·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연루 의원 총선 앞 줄소환 전망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4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 12일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날 송 전 대표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유력 정치인이 공익법인을 사적인 정치외곽조직으로 변질시켜 기업인들로부터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당 대표 당선

을 위해 조직적·대규모로 금품을 받고 살포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진상과 실체가 정경유착·금권선거 범행임을 규명하고, 범행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로서 최종적인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대표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박용수 전 보좌관 등과 공모해 2021년 4월

27~28일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을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의 좌장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 의뢰해 교부용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1년 3월 30일과 4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지역본부장 10명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총 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위해 송 전 대표가 스폰서로 지목된 기업가 김모씨와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각각 부의 선거자금 5000만원과 1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다고 강조했다.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정치활동

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 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 중 송 전 대표가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 부터 받은 4000만원은 소각 시설 허가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받은 뇌물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송 전 대표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일정을 앞당겨 지난해 4월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했고, 두 차례 자진 출두 시도가 무산된 뒤 같은 해 12월 8일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같은 달 18일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송 전 대표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구속 이후 송 전 대표는 검찰의 5차례 소환조사 통보에도 변호인 접견, 건강상 사유 등을 들어 불응했다.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소환에 불응했다가 오후 한 차례 검찰청사에 출석한 것이 유일했는데, 이때도 송 전 대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다시는 부르지 말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검찰이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를 진행한 의원은 무소속 이성만 의원, 민주당 임종성·허종식 의원 등 총 3명이다.

검찰은 최근 이 의원과 허 의원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이 국회에서 확보한 의원들의 동선 자료, 관계인들의 진술 등을 교차 검증해 수수 의원 상당수를 특정할 것으로 알려진 만큼 총선을 앞두고 줄소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이재명 대표 피습에 총선 일정 속도 조절

공관위 구성·인재 영입 지연 불가피...이 대표 관련 재판도 연기

이재명 대표의 피습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일정 조정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특히 신당 창당과 관련 당내 일부 세력의 탈당도 우려되고 있는 만큼, 전반적인 총선 일정이 뒤로 미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4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중요한 당무 같은 경우는 약간 보류하고 있다”며 “일반적인 당무는 최고위원회에서 같이 처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표가 병원에 있어도 면회가 자유로워지면 대표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면 돼 그렇게 당무가 오랫동안 정지되거나 중요한 일을 처리 못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당장 시급한 총선 당무는 공천 업무를 담당하는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인혁백 고려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발표하면서 공관위원 인선은 순차적으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공관위 구성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논의가 돼 있다. 다만 최종적으로 대표 의견을 들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지나 사무총장이 가서 최종적으로 대표 의견을 확인하고 나면 최고위에서 의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통상 2월엔 공천이 진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공관위 구성만 마치고 나면 관련 업무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영입 인재 발표도 주춤할 가능성이 크다. 인재 발굴 등을 총괄하는 당 인재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이 대표가 영입 인사를 직접 맞이해주는 모양새는 갖추려면 이 대표가 당무를 정상적으로 재개한 뒤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재판 일정도 연기도 사건 선고가 총선 이후로 밀릴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공판 기일은 오는 8일에서 22일로 미뤄졌고,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의 공판 기일은 9일로 잡혀있었지만 12일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재판 절차를 협의하기로 했다. 이달 19일로 잡혀있는 ‘백현동 의혹·고(故) 김문기 허위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공판 기일 역시 상황에 따라 밀릴 수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서울대병원 “이재명 대표 회복 순조”

집도의 브리핑 “속목정맥 60% 예리하게 잘려...봉합 후 혈관 재건”

지난 2일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해 서울대병원원에 입원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왼쪽 목에 1.4cm 자상을 입었으나 순조롭게 회복 중이라고 병원 측이 밝혔다.

이 대표의 수술을 집도한 민승기 이식혈관외과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대병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순조롭게 회복 중이나 외상 특성상 추가 감염이나 수술 합병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경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치료 경과를 설명했다.

민 교수에 따르면 이 대표는 좌측 목 부위에 흉쇄유돌근이라고 하는 목빗근 위로 1.4cm 길이의 칼에 찔린 자상을 입었다.

민 교수는 “근육을 뚫고 그 아래 있는 속목정맥

60% 정도가 예리하게 잘려져 있었고 핏팅이가 고여 있었다”며 “다행히 동맥이나 주위 뇌신경·식도·기도 손상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의료진은 2일 오후 4시 20분께부터 1시간 40분 동안 이 대표의 수술을 진행했으며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상처 부위를 세척한 뒤, 찢어진 속목정맥을 봉합하고 혈관 재건을 했다고 밝혔다.

민 교수는 이 대표가 서울대병원에서 수술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속목정맥이나 동맥 재건은 난도가 높고 수술 성공을 담담하기 어려워 경험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부산대병원 요청을 받아들여 수술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지방정가 라운지

“장흥 표고버섯 한파 피해 농가 대책 시급”

박형대 도의원, 현장 방문

온난화에 따른 기상 이변으로 표고버섯 재배농가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원목에 활착된 버섯이 따뜻한 날씨에 피어 울렀다가, 곧바로 막힌 한파에 얼어붙은 뒤 날이 풀리면서 그대로 썩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도 이뤄지지 않아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됐다는 게 농민들 하소연이다.

4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박형대(장흥 1·진보) 도의원은 지난 3일 장흥군 유치면 표고버섯 피해 농가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대책 마련 등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에는 장흥군표고버섯연합회, 장흥군의회, 장흥군도 동행했다.

장흥 유치 일대는 원목 표고버섯의 주산지로, 올 3~4월에야 필 표고버섯이 지난해 12월 따뜻한 날씨로 일찍 피는 바람에 한파로 동해를 입었으며, 날

이 풀리면서 썩어가고 있다는 게 농민들과 박 의원 얘기다.

버섯이 기후 변화에 민감한 품목이라는 점 탓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도 제한돼 있어 농민들이 피해에도 발만 구르고 있다. 전남도와 장흥군 등은 수차례 버섯을 보듬대상 작물에 포함해줄 것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현재 6개 농가가 재배하고 있는 19만 5000개의 원목에서 피해가 발생했고 장흥군 등의 조사가 본격화되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박형대 의원은 “표고버섯은 기후변화에 민감한 품목이라 갈수록 재배가 어려워지는데, 피해 농가 지원 대책뿐 아니라 농작물 재해보험에 표고버섯이 포함되기 위한 대책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보험사기 ZERO

한사람의 보험비도 전국민의 경제부담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 10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 적발 금액에 따라
-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 금융감독원 | h-well 국민건강보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